

李濟馬의 宇宙論과 四象의 臟腑配屬의 妥當性 考察 (太極-心, 四象-肺脾肝腎의 四象의 이해)

金 鎮 成*

A Study on the Cosmology of Lee Jae-Ma and the Propriety of the Visceral Assignment by Sa-sang Constitution.

Jin Sung, Kim

Dept.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Sunnam, Korea

The methodology of the Oriental philosophy is deductive and that of the of Occidental philosophy is inductive. Therefore study on the Oriental philosophy must start from right comprehension of fundamental premise before detailed analysis.

The writer studied the meaning of the cosmology which forms the basis of Sa-sang constitutional philosophy and the propriety of visceral assignment by Sa-sang constitution which forms the theoletical basi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results are following ;

1. The cosmology of Lee jae-ma has the existent principle but don't have the side of the formative principie.
2. The cosmology of Lee jae-ma is not that searches for the objective rule of nature but that centers around a human being by subjective understanding system.
3. The cosmology consists of four elements, that is mind(心), body(身), events(事), and nature(物). Among them mind and body means a human being, nature means the natural enviromnent containging time and space, events means not that of natur but that of human being.

*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4. The mind and body as Yin-yang(陰陽) means the state which objects and self become one.
5. The mind as the Great-Absolute(太極) has the possibility of two interpretation, Firstly it means the state of the source of life which nature and human being become one. and secondly it means that the mind of a human being becomes the cosmos or the center of the cosmos.
6. In the visceral assignment by Sa-sang constitution the position of heart, the Great-Absolute in center is immanent within four viscera and the function of it is that the undifferentiated unitary organic body, after it is differentiated still serves as the unitary organic whole by mutual connection, adjustment, unification and supervision.
7. The Great-Absolute in center is divided into the Great-Absolute of mind and that of body. And the Great-Absolute of body consists of the heart and the system of blood vessel, that of mind means the self-consciousness(自我)

緒 論

本 論

東洋哲學의 方法論은 演繹的이고 西洋哲學의 方法論은 歸納的이다. 그러므로 東洋哲學을 研究하는 데 있어서는 細部的인 分析에 앞서 基本的 前提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만약 基本 前提가 불명확하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는 모든 논의들이 空論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상철학의 논리전개의 기본 틀인 事心身物의 宇宙論의 含意를 究明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나 동무가 宇宙論으로서 제시한 事心身物에 대하여 明確한 語義의 설명이 없이 그것을 이용한 철학적 전개만 있을 뿐이고, 사상 의학의 논리적 기초인 五臟의 四象의 臟腑配屬도 그 논리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여 四象을 五行으로 전환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이에 저자는 우주론에서는 東武 宇宙論의 性格과 事心身物의 의미를, 사상적 장부배속에서는 中央之太極으로서의 心의 의미와 四臟과의 相關性에 대해 考察 해 보고자 한다.

1. 우주론

1) 周易의 宇宙論

周易의 宇宙論은 宇宙萬物이 形化하기 以前의 一元의 原氣인 太極이 陰陽·四象·八卦를 거치면서 森羅萬象이 形成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그 가운데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動態的 發生의 分化를 설명하는 것으로, 太初로 부터 현재의 우주가 생겨나기까지의 宇宙發生說에 해당하는 形成原理의 측면이 있고, 둘째, 靜態的 現象의 構成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주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存在原理의 측면이 있다.

이 이론은 우주만이 아니라 인간 個體의 發生過程과 成體의 存在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그 含意는 包括的이다.

周易의 宇宙論은 巨視的으로 볼 때 現代物理學에서 宇宙發生의 최신이론인 BIG BANG(대폭발)설만이 아니라 微視的으로 볼 때 原子의 세계나 지금도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는 素粒子的 세계에

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처럼 함의가 포괄적인 것은 태극·음양·사상... 이 實體를 지칭하는 概念이 아니라 實體乃至 現象의 性質을 의미하는 象徵概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어떤 實體, 어떤 現象을 代入해도 그것의 發生·分化와 構成·存在를 遺漏·不足함이 없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2) 東武의 宇宙論

가. 東武 宇宙論의 論理의 軸

東武 宇宙論의 論理의 軸의 특징은 그 기본전제는 주역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太極·陰陽, 四象의 象徵體系에 心身事物의 特定對象을 代入하므로써 그 含意의 解析乃至 適用의 幅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따라서 동무 우주론의 논리의 軸은 태극·음양·사상이 아니라 心身事物이지만 태극·음양·사상과 결합함으로써 심신사물의 성격을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고 또한 宇宙論의 地位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무 우주론의 構成要素이자 實際內容으로서 心身事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心身事物의 意味

心身은 人間을 의미하는 것이고 物은 人間存在의 터전이 되 일반적으로 이해되듯이 形化된 天地自然(空間)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時空을 包括한 人間意識에 捕捉되는 自然環境이며 事는 自然界 내에서 벌어지는 季節의 變化와 그에 따른 盛衰 등의 事件과 現象을 의미하는 것(自然界의 事件)이 아니라 오로지 物으로써 표현되는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人間事일 뿐이다.

事가 自然事가 아닌 人間事인 이유는 物이란 時空의 連續體로서 時間이 없는 空間이나 空間이 없는 時間은 成立할 수 없으며 時間이란 概念은 變化

를 내포한 것으로 그것은 自然의 變化, 즉 自然事를 의미하므로 自然事란 物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事란 人間事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物과 事는 心身の 存在인 人間이 經驗으로 接觸할 수 있고 意識으로 捕捉할 수 있는 範疇內的 自然(物)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內容으로서의 人間事(事)이다. 그러면 동무가 이러한 宇宙觀에 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동무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바람직한 삶의 길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知的探究의 途程에서 삶의 기본 構圖를 人間(心身)과 人間의 環境(物)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삶의 內容(事)으로 설정한 것이고 삶의 기본구도를 그대로 우주론의 구성요소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우주론은 자연계의 規律와 法則을 客觀적으로 糾明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의 解決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인간이 직접 經驗하는 세계에 대한 現實的이고도 主觀的인 認識體系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人間中心의 宇宙論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동무 우주론의 구성요소로서 심신사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다. 다음단계의 문제는 四象-心身事物 이전의 太極-心, 陰陽-心身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다. 陰陽之心身の 意味

周易의 宇宙論은 自然界의 規律와 法則에 대한 客觀的 認識體系이므로 發生의 形成原理와 現象의 存在原理 양자가 모두 成立되지만 東武의 宇宙論은 人間の 現實的 經驗世界에 대한 主觀的 認識體系이므로 發生의 形成原理는 성립될 수 없으며 (현상의 상태에서 발생의 전단계로 遡及해 들어갈 때 인간과 인간사는 증발해 버리므로 경험이나 주관은 있을 수 없다.) 現象의 存在原理만이 성립된다.

(發生의 形成原理가 成立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論究해 보면 事心身物의 前 段階인 心身은 人之 心身은 아니며 精神的 要素와 物質的 要素라고 해석할 수 있고, 太極-心은 生氣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人間의 思惟내지는 認識能力으로 形成原理의 측면에서 陰陽之心身과 太極之心의 意味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문제가 되는 것은 精神으로 精神이 宇宙發生의 첫 단계인 未分化된 氣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지 아니면 發生이 어느정도 進行되어 생명체가 나타나고 생명체가 어느정도 복잡한 구조를 갖추었을 때 부터 그 구조에 따른 기능으로서 정신이 발현된 것인지 여부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靜態的 現象의 存在原理적 측면에서 태극·음양·사상의 用法을 보면 太極이란 일정한 대상을 一元의 全體로 觀察하는 것이고, 陰陽이란 동일한 대상을 一元의 二分으로 觀察하는 것이고, 四象이란 동일한 대상을 一元의 四分으로 觀察하는 것이다.

즉 관찰의 대상(宇宙이든 人間이든)을 一元의 全體로 본것이 태극이고, 一元을 二分하여 본것이 陰陽이고(二元論이 아님), 一元을 四分하여 본 것이 四象(四元論이 아님)이므로 觀察의 對象 자체는 변하지 않고 관찰자의 觀點의 變化가 있을 뿐이다.

四象 陰陽 太極
心身事物 = 心身 = 心

그런 의미에서 볼 때 陰陽에서의 心身은 四象의 心身事物을 포괄한 개념이다. 이 때 음양의 心과 身을 따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心身을 합하여 본다면 '物我一體'의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 事物이 아니라 心身이라한 것은 東武의 宇宙論이 人間中心의 主觀的 認識體系이기 때문이다.

'物我一體'란 事物이 心身으로 녹아 들어오고 心身이 事物까지로 확대된 상태를 표현한다.

心-形而上, 機能, (事, 心)
身-形而下, 構造, (身, 物)

라. 太極心의 의미

太極에서의 心은 陰陽의 心身을 포괄한 것이니 급기야 心身の 意識적 구분마저도 초극된 하나로 混融된 상태로서 이 때의 心을 말로써 표현해 본다면 첫째, 太極이 宇宙의 一元狀을 의미하고 太極으로서의 心이 人間中心의 宇宙論에서 언급된 것을 감안할때 天人一體의 生命의 本源인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둘째, 내 마음이 곧 宇宙라거나 또는 내 마음이 宇宙의 中心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 해석의 가능성의 논거는 동무의 우주론이 주관적 인식체계이고 존재원리적 입장에서의 구분임을 감안할 때 四象의 心身事物을 기본으로 하는 구도에서 陰陽의 心身으로 요약하게 되면 陰陽의 心身이 四象의 心身事物을 포괄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 心身事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즉 우주의 구성요소는 그대로 있으면서 二分的 觀點에 의해 그 명칭을 心身이라 한 것이고 太極의 心도 心身事物을 그대로 둔 채 心으로 통칭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四象의 心身事物은 一元의 二分的 觀點인 음양에서나 一元의 觀點인 태극에서나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대상을 바라보는 觀點에 따라 명칭만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론만이 아니라 동무의 모든 논리체계가 四分法的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一元論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 때 일원의 象徵개념인 太極을 구체적 용어인 心으로 표현하였을 때 그 心에는 生命이라는 개념이 담겨있으며 또한 그것이

宇宙의 一元으로서의 心이므로 태극심은 天人一體의 生命의 本源인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두번째 해석의 가능성의 논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太極-心, 陰陽-心身, 四象-心身事物의 관계와 의미의 이해에서 논리적으로는 太極-陰陽-四象의 순서를 가지므로 太極心이 분화하여 陰陽之心身으로, 陰陽之心身在 분화하여 四象之事心身物이 되는 것이나 현실적(실제적)으로는 인간의 認識은 나타나 있는 現象으로부터 출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무가 事心身物을 우주의 構成要素로서 認識設定한후 心身이 확대되어 事物을 포괄하고 다시 心이 확대되어 身을 포괄하는 순서를 거친 것으로 太極心이란 最初의 상태가 아니라 最終의 상태인 것이고 그것은 意識이 확대되어 宇宙와 하나가 된 상태 또는 事身物이 意識의 統制 또는 領域안에 들어 온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太極心은 내 마음이 곧 宇宙인 狀態이다.

또 다른 論據는 東武의 宇宙論에서 太極-陰陽-四象의 논법과 四端論에서의 太極-陰陽-四象의 논법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四端論에서의 太極-陰陽-四象의 논법의 특징은 四象과 臟腑配屬의 문제에서 태극과 사상을 동시에 논한 것이다.

즉, 肺脾肝腎을 四維之 四象으로 心을 中央之 太極이라 하였던 데 중앙지 태극은 원래의 一元的 전체를 의미하는 태극과는 다른 것이나 사상의 단계에서 분화된 사상이 一元的 四分概念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一元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主宰機能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장부配屬에서의 太極과 四象의 논법에서 中央之 太極의 개념을 宇宙論의 太極-心의 의미 파악에 이용하면 내 마음이 곧 宇宙의 中心·主宰處로 해석할수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상의 논리와 東武의 사고방식에 따라 太極心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 해석이가능하다.

첫째, 元太極의 입장에서는 天人一體의 生命의 本源인 상태이고,

둘째, 中央之 太極과 連係된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곧 宇宙, 또는 宇宙의 中心·主宰處가 된다.

이러한 해석이나 내포는 어디까지나 普遍妥當한 宇宙論의 결론이 아닌 東武宇宙論에 국한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東武 宇宙論의 의미를 過少評價하는 것은 아니며 동무는 자신의 우주론에 의해 인간이해의 새로운 思考體系와 觀點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儒敎哲學의 오랜 전통위에 성립된 것이다.

마. 太極心의 해석과 기존 哲學의 관계

위와 같은 견해는 중요한 철학적 내포를 시사한다. 四象의 事心身物의 의미 파악에서 이미 人間中心의 宇宙論임을 밝힌 바 있지만 太極心의 단계에 와서는 그것이 한층 심화되어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기존의 黃老學에서 天人相應이나 天人合一思想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小宇宙인 人間의 生命原理는 大宇宙인 自然界의 原理와 일치하므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인간생명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동무의 宇宙論에서는 인간은 小宇宙가 아니라 宇宙成立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며 나아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

이런 견해는 또 陸象山과 王陽明의 吾心卽宇宙(내 마음이 곧 宇宙), 萬物一體論이나 佛家의 一切唯心造의 思想과 彷彿한 바가 있다.

그러나 象山이나 陽明의 吾心卽宇宙의 論理는 心卽理에서 나온 것으로 心卽理란 對象事物을 經驗하거나 배우기 이전에 이미 내마음 속에 그러한 이치

가 갖추어 있다는 뜻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吾心即宇宙란 내 마음 속에 우주의이치가 갖추
 어져 있다는 뜻이고 陽明의 萬物一體論은 心外無
 物, 心外無理의 論理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 裏面
 에는 外界의 物體의 存在는 내 마음과 접촉할 때비
 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며 내 마음과 접촉하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고
 가 깔려있으나 東武의 太極心은 온 우주전체를 일
 켜는것이요 太極心 밖에 外物이 있을 餘地는 없으
 며 또한 동무의 태극심은 自我가 우주까지로 확대
 된 결과이다.

또 陽明의 心即理, 吾心即宇宙, 萬物一體論은 어디
 까지나 朱子の 理가 대상사물에 대한 客觀의理인
 것과 비교하여 마음 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主觀的 理의 主張에서 출발한 것으로 理에 대한 主
 客의 認識의 次元에서 及되는 것이지만 東武의
 宇宙論은 그것이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나 理에 대
 한 主客의 認識의 次元이 아닌 觀點에 따른 分類에
 서 출발한 것이고 그 내용은 心身적 存在 즉 온전
 한 生命인 人間을 중심으로 한 우주론이면서 태극
 심에 이르러서는 우주가 곧 하나의 생명으로 확대
 통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陽明의 吾心即宇宙나 萬
 物一體論은 東武의 太極心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으
 며, 佛家의 一切唯心造도 對象事物은 변함없이 그
 대로 있으되 내 마음의 作用 또는 觀點에 따라 다
 르게 비쳐 보인다는 뜻이며 그 이면에는 本性의 변
 함없음과 맑음을 깨달아 現象의 변화의 의미를 파
 악함으로써 꿈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것이니 이
 역시 東武의 太極心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東武의 人間中心의 宇宙論은 類를 찾을
 수 없는 獨創의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 太極-心, 四象-肺脾肝腎의 四象醫學의 이해

1) 사상의 장부배속에서 심의 位相

『사단론』에서 “五臟之 心 中央之 太極이요, 五臟
 之 肺脾肝腎 四維之 四象”이라 하였는 데 이 구절
 은 이제마의 독창이자 이제마이전의 사고체계에서
 는 이해되기 어려운 혁명적 언급이다.

이 부분에서의 태극과 사상의 논법은 우주론에서
 태극심의 의미추구에 적용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五臟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체를 기존 한의학에서는
 五行으로 분석하고있는 데 비해 사상의학에서는 四
 象의 四焦개념에 의해 분석하므로써 남게되는 心臟
 의 位相설정의 논리적 타당성여부와 그 의미의 해
 명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담고있다.

본래 太極이 一元의 전체를 의미하고, 四象이 一
 元의 전체를 四分하여 보는象徵語임을 고려할 때
 사상의 단계에서는 태극이란 언급될 수 없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心과 肺脾肝腎은 동일한 五臟中의
 一部分인데 心만이 따로 떨어져 四象밖에 있다면 肺
 脾肝腎도 온전한 사상이 될 수 없고 심도 온전한
 태극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心과 肺脾肝腎은 어떤 관계로 이해되어
 야 하는가?

표 1

太極		人	間
陰陽		心	身
四 象	陽中之陽(上焦)	哀	肺
	陽中之陰(中上焦)	怒	脾
	陰中之陽(中下焦)	喜	肝
	陰中之陰(下焦)	樂	腎

표 1은 人間全體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五臟之 心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四焦개념으로서의 肺脾肝腎은 人間全體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폐비간신 밖에 五臟之心이 자리할 곳은 없다. 그렇다면 오장지심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2) 心의 位置와 機能

사상적 개념속에서 心의 위치는 肺脾肝腎의 四臟(四焦, 四黨)속에 內在되어있다. 풀어서 말하면 四焦중 어느 一焦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초 밖이나 사초에 둘러싸인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四焦自體에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심은 心臟(heart)과 血管(blood vessel)을 말하며 기능면에서보면 혈관은 全身(四焦)을 灌流하고 있고 心血管系에 의한 血液의 循環은 사초적 폐비간신의 呼吸氣液, 出納水穀의 기능중 어느 특정기능의 분담과는 관련이 없으나 혈류를 통하여 사초사이가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有機體로서 統合될 뿐만 아니라 전신적 調節(主宰)작용까지 수행한다.

사상이란 음양이 분화된 것이고 음과 양은 각각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陰根於陽 陽根於陰의 相對의 인 관계인 것처럼 사상도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관계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相互 連繫, 調節, 統合, 主宰기능이 장부로서는 오장지심에 있다고 보고 중앙지태극이라 이름한 것이다.

분화이전의 일원인 태극(인간)이 사상으로 분화된 이후에도 일원적 전체로서 주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장지심이며 따라서 이 때의 태극을 中央之 太極이라 하여 최초의 태극과 구분하여 동일한 것이 아님을 나타냈고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태극을 元太極이라 이름할 수 있다.

3) 五臟之心의 生理 病理的 立場

사상체질이란 폐비간신 四臟機能의 大小에 따른 四焦사이의 陰陽升降勢力的 불균형의 특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體質別 生理는 승강세력의 불균형

의 정도가 일정 범위내에 있는 상태이고, 病理는 불균형의 정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 병적증세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五臟之心은 사초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초 자체에 內在해 있는 것이므로 四焦相互間의 連係와 統合, 主宰機能으로써의 心을 四焦內에서 抽出하여볼 수는 있으나 심장은 체질적 특징을 구현하는 데 간여하지 않으므로 생리와 병리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증론에서 심장의 動悸를 의미하는 정충과 같은 병증은 심장 자체의 이상이 아닌 사초의 음양 승강의 편차에 따른 병증반응의 出現處로써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날 우리가 사용하는 심장과 관련된 병명들 즉 협심증·심근경색증·관상동맥경화증·심장신경증·혈압의 고저에 따른 심장의 이상등은 실제로도 다른 장기의 이상내지는 攝生의 不合理에서 二次的으로 誘發되는 것이며 사상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은 폐비간신 사장의 대소에 따른 편차만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치료도 이들 장기의 기능의 조절로써 다스린다.

이것은 陰陽의 昇降이란 개념 자체가 單一 臟腑 또는 어느 一焦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대소관계에 있는 장부사이의 升降緩急을 일컫는 것이고 병증이란 승강의 이상을 의미하므로 치료 역시 이들 대소관계에 있는 장부사이의 승강을 조절하는 것일 뿐 심장 자체는 조절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병증의 발현처일 뿐이다.

4) 心(mind)之 中央之 太極

폐비간신 四臟에 대한 中央之 太極을 心(heart)이라 하였을 때 哀怒喜樂 四心에 대한 中央之 太極은 어떻게 지칭해야 옳을까?

본래 기존의 한의학이나 사상의학이나 心身一體의 입장이므로 心이라하면 臟器로서의 心臟(heart)

과 精神(mind) 둘 다를 포함하여 칭하기도 하고 어느 하나만을 칭하기도 하는 데 哀怒喜樂의 四心을 四臟에 대응하여 본다면 身(body)의 중앙지태극인 心臟(heart)에 대해 心(mind)의 중앙지태극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명칭은 自我가 될 것이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心		身	
哀			肺
怒	自我	心臟	脾
喜	(心之太極)	(身之太極)	肝
樂	(中央之太極)	腎	

이 때 心臟은 身之中央之太極으로써 肺脾肝腎 四臟에 포함되는 것이고, 自我는 心之中央之太極으로써 哀怒喜樂 四心に 포함된다.

즉 中央之太極은 四焦속에 內在해 있으면서 分化된 四象이 一元의 全體일 수 있도록 하는 主宰의 기능을 담당한다.

5) 中央之太極의 自律性

또한 중앙지태극을 설정하여 聖인과 衆인이 폐비간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聖인의 태극과 衆인의 태극이 다르다고 한 것은 태극과 사상의 용법의 타당성을 떠나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는, 儒敎가 修己治人の 학문임을 고려할 때 인간에게는 修養의 自律性이 있고 그 자율성의 소재를 太極心으로 본 것이다. 만약 태극심의 자율성이 없다면 폐비간신 사장의 대소로 결정되는 체질적 특징(自然法則에 따라 先天의으로 부여되고 後天의變化의 가능성이 없는 心身の 不調化)은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 둘째는, 사상의학이 기존의 동양의학

과 마찬가지로 心身一體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정신을 우위에 두고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臟腑論) 心爲一身之主宰

(四端論)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傍通於衆人之四象也

(四端論) 天下衆人之臟理 亦皆 聖人之臟理 而 才能亦皆聖人之才能也…….

…而自言曰 我無才能云者 豈才能之罪哉 心之罪也

6) 四象과 五行의 轉換可能性 與否

사상의 단계에서 태극이 云謂될 수 없고, 四焦外에 중앙지심이 자리할 수 없음에도 함께 언급되어 태극의 의미가 誤解되고 사상의 四分法적 思考가 五要素 로 오인되어 四象을 五行으로 전환해 보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성립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五行은 水(陰中之陰)와 火(陽中之陽)의 昇降을 기본으로 하여 木火土金水의 循環으로 논리가 완성되지만 四象은 陰陽의 昇降을 기본으로 하여 四象의 昇降의 細分化로 논리가 완성되므로 四象속에 五行類의 生克의 循環原理 는 없으며 또한 四象이외에 太極을 또 다른 一象으로 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太極이 四象과 동시에 언급된 이유는 分化된 四象만으로는 元太極이 갖고있는 全體性과 一元性 그리고 主宰와 統制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元太極이 아닌 中央之太極을 설정하는 二重 裝置를 통하여 인간 생명의 有機的인 全體性과 整合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中央之太極은 사상밖이나 사상내에 따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四象 自體속에 內在되어 있는 主宰의 機能에 대한 別稱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을 오행으로 보는 것과 사상으로 보는 것은 어느것이 옳으나의 문제가 아니라 有用性의 문제며 사상을 오행으로 전환하여 일치된 원리를 추구하는 것은 연구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동무가 병증론에서 전혀 오행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結 論

四象哲學의 基盤을 이루는 事心身物의 宇宙論의 의미와 四象醫學의 논리적 기초인 五臟의 四象의 臟腑配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얻은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東武 宇宙論은 形成原理의 側面은 없으며 存在原理의 宇宙論이다.

2. 自然의 客觀的 規律을 論하는 것이 아니라 人

間의 意識과 經驗에 捕捉되는 現實的이고 主觀的 認識體系에 의한 人間中心의 宇宙論이다.

3. 心身事物에서 心身은 人間을 의미하고, 物은 時空을 포괄한 人間意識에 포착되는 自然環境이며, 事는 自然事가 아닌 人間事를 의미한다.

4. 陰陽之 心身은 物我一體의 상태를 지칭한다.

5. 太極之 心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 즉 첫째는 天人一體의 生命의 本源인 狀態, 둘째는 人間의 마음이 곧 宇宙 또는 宇宙의 中心이라고 할 수 있다.

6. 四象의 臟腑配屬에서 中央之 太極으로서 心의 位置는 肺脾肝腎 四臟이외에 또다른 一象으로서가 아니라 四焦 自體 속에 內在해 있는 것이고, 그 機能은 分化以前의 一元인 有機體가 四象으로 分化된 이후에도 一元的 全體로서 相互關係, 調節, 統合, 主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7. 中央之 太極을 心之 太極(精神的 要素)과 身之 太極(身體的 要素)으로 구분하여 보면 心之 太極은 自我, 身之 太極은 心臟과 血管系를 의미한다.